

돌싱남녀 “노브라-후줄근한 옷차림 매력 없어”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이혼한 남녀)들이 맞선 자리에서 이성을 보고 ‘비호감’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 남성의 경우는 상대 여성이 ‘노브라 차림’ 일 때, 여성의 경우 상대 남성이 ‘후줄근한 옷차림’ 일 때 비호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의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동으로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32명(남녀 각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니’라는 질문에 남성은 ‘노브라’라는 답변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낯’(28.2%), ‘쫄바지(레깅스)’(19.2%), ‘백발’(12.0%) 순이었다.

똑같은 질문에 여성은 33.1%가 ‘후줄근한 옷차림’을 꼽았으며 ‘백발’(28.5%), ‘초췌한 모습’(20.7%), ‘민낯’(13.2%)이 뒤를 이었다.

‘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우면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도 결과는 상이했다.

남성은 36.1%가 ‘신체조건’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활력’(23.7%)과 ‘말투’(19.2%), ‘가치관’(15.0%) 등의 의견도 나왔다.

여성의 경우 ‘활력’(29.0%)과 ‘가치관’(26.2%), ‘신체조건’(23.7%) 등이 큰 차이 없이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4위는 ‘생활자세’(14.3%)였다.

이외에도 ‘재혼 맞선 상대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어떤 장점이 있으면 호감도를 높여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34.6%는 ‘티 없는 피부’를 골랐다. 이어 센스 있



▲ 재혼 맞선 상대의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남성은 ‘신체조건’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 여성은 ‘활력’이 없는 경우를 꼽았다. 사진=shutterstock

는 옷차림’(27.1%), ‘매력 있는 음성’(18.0%), ‘가지런한 치아’(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여성은 ‘매력 있는 음성’이 32.3%로 가장 많았다. ‘밝은 표정’(24.8%), ‘센스 있는 옷차림’(21.1%), ‘티 없는 피부’(15.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 결과와 관련해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대상자는 4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도 있지만 50대에서 80대까지의 중장년층도 많아서 연령대가 매우 넓다.”며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를 실망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재혼 대상자들에게 미팅을 주선하고 나면 ‘상대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며 “외모를 중시하는 남성은 아무래도 신장이나 신체구조 등의 신체적 특성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 여성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면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Queen Spa

정통 지압

여성
전용

Foot(30min)
&
Body(30min)

발(30분) + 바디(30분)

\$50

Body Massage
(1hour)

지 압 (1시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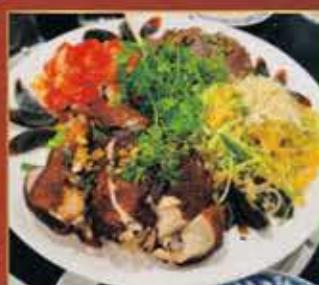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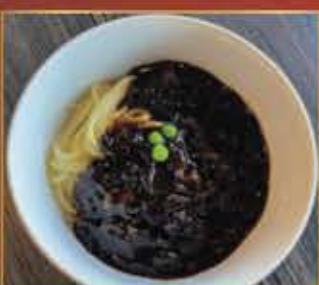
GG 퀸스파

714.591.5260
985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